

그리셀다의 대응방식: 언어와 해석

최지연

차례

- I. 서론
- II. 그리셀다의 언어적 대응
- III. 그리셀다의 해석의 능력
- IV. 결론

I. 서론

제프리 초서(Geoffrey Chaucer, 1340-1400)의 「학사 이야기」(*The Clerk's Prologue and Tale*)는 페트라르카(Petrarch)의 라틴어 판과 번역자가 알려져 있지 않은 페트라르카의 불어판 번역 『그리셀다의 삶』(*Le Livere Griseldis*)을 기초로 개작했다고 알려져 있다.¹⁾ 그러나 이 작품은 페트라르카의 알레고리와는 거리를 둔 현실적인 인간경험으로 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우선 페트라르카의 종교적 알레고리를 경험세계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이야기 놀이’라는 『캔터베리 이야기』(*The Canterbury Tales*)의 전체구도²⁾와 이 ‘그리셀다 이야기’를 진술하도록

1) 그리셀다와 그녀의 인내심을 다룬 이야기는 매우 유명하여 14세기의 문학 대가들인 보카치오, 페트라르카, 초서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현재는 초서의 이야기가 주로 연구되고 있고 초서와 다른 작가와의 관계를 다른 연구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초서는 보카치오의 이태리어 판보다는 페트라르카의 라틴어본과 번역자가 알려지지 않은 페트라르카의 불어판 번역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Severs 3-4). 초서는 보카치오에게 받은 영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가 보다 현실적이고 정치적 성향이 농후한 보카치오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데이빗 윌리스(David Wallace)는 원작인 보카치오의 정치적 영역이 페트라르카의 종교적 알레고리 안에 맴돌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한다(Wallace 282).

설정된 극적 인물인 ‘학사’를 들 수 있다. 초서는 ‘학사’라는 인물을 설정함으로써 페트라르카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시킨다.

딘쇼(Dinshaw)에 따르면 14세기 민간설화 형태로 널리 퍼져 있던 ‘그리셀다 이야기’(The story of Griselda)는 남성 작가들에 의해 텍스트로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그리셀다는 살아있는 여성이 아닌 남성 중심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매개체로 다루어진다. 특히 페트라르카는 보카치오의 ‘그리셀다 이야기’를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모든 행위에 종교적 가치와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리셀다를 신에 대한 보편적 인간의 표상으로 해석한다. 페트라르카는 처음부터 종교적 목적으로 그리셀다를 해석하기 때문에 그녀가 실제적인 여성으로서 겪어야 하는 인간적인 고통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초서는 여성의 고통에 공감하는 학사를 통해 여성의 입장에서 그리셀다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고, 그리셀다에게 인간적인 목소리를 부여하여 실제적인 여성인물의 경험을 복원하여 페트라르카의 종교적 해석으로부터 탈피하려고 시도했다(133-137).

이와 같은 점들을 미루어서 초서는 기존의 그리셀다와는 다른 각도로 자신의 그리셀다를 창조하려고 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바쓰부인(Wife of Bath)과 같이 현실적이고 활동적이고 급진적이기까지 한 인물을 창조한 초서가 순종적 여인의 대명사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리셀다를 선택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한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리셀다가 처한 억압적인 상황과 이에 대한 그녀의 대응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초서의 「학사 이야기」를 페트라르카의 중

-
- 2) 제프리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는 순례객들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관주인(Host)이 제안한 ‘이야기 놀이’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순례객들이 해야 하는 이야기의 조건은 ‘과거에 일어난’(General Prologue, 이하 GP 795)일이야 했고, 자신의 의무를 잘 이행하고 가장 재미있고 교훈적인 이야기를 한 사람은 순례객 전부가 대접하는 식사를 상으로 받게 된다. 요리사(Cook)나 견습기사(Squire)처럼 미완성된 이야기의 순례객, 이야기 할 기회를 얻지 못한 순례객, 나레이터인 초서처럼 두 번의 이야기 기회를 얻은 순례객 등이 있지만 각각의 순례객들은 여관주인의 주도 아래 자신의 이야기를 전개하게 된다. 모든 이야기는 ‘교훈’과 ‘재미’라는 목적으로 전개된다. 「학사 이야기」는 키트리지(G. L. Kittredge)가 말한 소위 ‘결혼 그룹’(marriage group)중 하나이다(202).

교적 알레고리와 차이를 두고 바라볼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월터와 그리셀다가 현실적인 신분차이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개인으로 제시되었고 이로 인해 그리셀다에 대한 월터의 태도가 훨씬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월터의 억압이 정도와 공간적 면에서 강화, 확대되는 점과 또한 이에 대응하는 그리셀다의 언어적 대응방식과 ‘의복의 비유’를 이용한 자기인식에 주목함으로써, 초서의 그리셀다가 순종과 인내심을 통해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의 고통과 억압을 표출³⁾하는 여성을 뛰어넘어서 더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언어적 대응을 통해 이전의 그리셀다와는 차별화된 면을 보이고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그리셀다의 언어적 대응

그리셀다가 처한 억압적 상황은 이야기의 도입부에서부터 월터와 그리셀다의 계급적 차이에서부터 분명하게 드러난다. 먼저 월터는 가부장제 남성의 전형인 매우 지배적인 인물이다. 그는 롬바르디아에서 가장 고귀한 가문 출신으로 조상대대로 그 지역의 군주이며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에 의해 사랑과 두려움의 대상으로 제시된다 (*The Clerk's Prologue and Tale* 이하 CPT 64-70).⁴⁾ 그는 또한 주도면밀하며 정확한 판단력의 소유자로 그가 결혼에 관심을 두지 않자 백성들이 몰려가 결혼할 것을 간청했을 때, 그 결혼 요청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직접 자신이 아내를 선택할 것이며, 자신이 선택한 신부가 누구이든 시간에 황제의 딸처럼 존경해야 한다는 약속을 받아들인다. 초서는 월터를 타인에 의해 지배받는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철저한 지배적 욕구만을 가진 인물로 그려낸다. 또한 월터는 그리셀다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을

3) 여러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은 초서의 그리셀다가 단순한 순종과 인내를 뛰어넘어 ‘침묵의 힘’(Power of Silence)을 제시하고(Carolyn Dinshaw, E. T. Hansen, Catherine Cox), 오히려 월터보다 자기정체성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usan Crane). 본 논문에서는 이들 비평가들이 간과했던 그리셀다의 월터에 대한 언어적 대응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 초서의 인용은 Larry D. Benson, ed., *The Riverside Chaucer*,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87)을 따르고 행수를 함께 표기하였음.

때 냉정한 눈길로 그녀의 여성다움 뿐 아니라 선함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인물이다. 「바쓰부인의 이야기」(*The Wife of Bath's Tale*)에서 여성이 휘두르고 있는 절대적인 지배권을 「학사 이야기」에서는 월터가 혼자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절대적 권력자 또는 폭군으로서의 월터의 모습은 앞으로 그리셀다가 처하게 될 이종의 억압적인 상황, 즉 계급적, 성적 약자로서의 불리한 상황을 짐작케 한다.⁵⁾

월터는 그리셀다와 자신의 신분격차와 결혼 당시의 약속을 빌미로 그리셀다에게 일련의 시험을 가한다. 처음의 두 시험에서 그는 그녀의 모성성을 공격하게 된다. 그의 그리셀다에 대한 시험은 잔인함의 강도와 공간적인 개념에서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첫 번째 시험에서 월터는 밤에 그리셀다가 홀로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서 딸을 죽이고자 한다는 말을 은밀히 했다(Alone into the chamber where she lay. He cam allone a-nyght, ther as she lay, *CPT* 464). 그리고 “자신의 신하들”(my noblemen, my gentils, *CPT* 480)과의 관계를 그 이유로 들었다. 두 번째 시험에서는 정확한 장소 언급은 없었지만 백성들이 그들의 결혼에 대해 불평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그리셀다를 시험한다(My peple sikly berth oure mariage, *CPT* 625). 그들의 결혼을 불평하는 이유를 신하들에서 백성들로 확대한다.

첫 번째 딸을 빼앗아가는 시험에서 그리셀다는 표정이나 태도, 말에서 한치의 변화나 동요를 보이지 않는다. ‘변함없음’은 그리셀다의 인내심의 발현이며, 월터가 그녀에게 요구한 사항이기도 하다. 결혼 당시 그리셀다는 월터에게 전적으로 순종할 것과 결혼의 서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월터의 종자가 들어와 딸을 살해해서 들고 나가는 척 했을 때도, 딸을 잃은 지 4년 후에 후계자가 될 아들을 낳아 그 아이를 잃을 위험에 처했을 때도, 그녀는 변함이 없다. 그리셀다의 탁월한 점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신의 속성이고

5) 페트라르카 본에서 월터가 신과 비견되고 그리셀다가 신에게 순종해야 하는 인간으로 읽혀지는 이유는 월터의 폭력적 성향이 아무런 논평이나 비평없이 그려지고 전달됐기 때문이다. 반면에 보카치오의 화자인 디오네오(Dioneo)는 월터에 대한 일말의 동정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그를 “잔인하고 짐승같은 폭군”(a cruel and bestial tyrant)으로 묘사한다 (*Decameron*, trans. McWilliam, 819). 초서의 학사는 월터의 잔인한 시험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시하며 그리셀다에게 동정의 여지를 보이고 있다.

그리셀다의 속성은 신을 닮아 고귀하다. “신은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다”(That thilke Moevere stable is and eterne, *The Knight's Tale* 3004). 그러나 이 시점부터 그리셀다의 말의 어조는 점점 변화되기 시작한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저는 이미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원하지 않고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명령으로 당신의 뜻에 따라 나의 딸과 나의 아들이 살해 당한다 할지라도 저는 조금도 슬퍼하지 않으려 합니다. 제가 자식으로 인해 얻은 것은 처음에는 병이요, 다음에는 슬픔과 고통이었습니다.

"I have, " quod she, "seyd thus, and evere shal:
I wol no thyng, ne nyl no thyng, certayn,
But as yow list. Naught greveth me at al,
Thought that my doughter and my sone be slayn-
At youre comandement, this is to sayn.
I have noght had no part of children tweyne
But first siknesse, and after, wo and peyne.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당신 뜻대로 하세요. 저에게 조언을 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시집왔을 때 저의 모든 옷을 남겨두고 온 것처럼, 제가 당신이 주신 옷을 입었을 때 저의 의지와 자유도 남겨두고 왔습니다. 당신이 좋으실 때로 하시길 바라고 저는 당신께 순종할 뿐입니다.

"Ye been oure lord; dooth with youre owene thyng
 Right as yow list; axeth no reed at me.
 For as I lefte at hoom al my clothyng,
 Whan I first cam to yow, right so," quod she,
 "Lefte I my wyl and al my libertee,
 And took your clothyng; wherefore I yow preye,
 Dooth youre plesaunce; I wol your lust obey.

(CPT 644-658)

그리셀다는 비록 자신의 딸과 아들이 다 살해당할지라도 당신이 원하신다면 결코 슬퍼하지 않겠다고 단언하며 자신의 결혼 서약을 끝까지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위에 인용된 그리셀다의 말에서 그녀의 어조가 처음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녀는 딸을 빼앗긴 후에는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딸의 죽음과 앞으로 닥치리라고 예감한 아들의 살해에 대해 정확히 언급한다. ‘병’, ‘슬픔’, ‘아픔’ 등의 단어를 통해서 딸을 잃은 후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짐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 딸’ ‘내 아들’이 당신의 명령으로 ‘살해당했군요’라는 말 속에는 월터를 아이들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동시에 그의 잔인함을 교묘히 비난하는 그리셀다의 저항 어조를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만(Mann)이 말한 화술과 생각의 생생한 즉각성이 그리셀다의 고통을 살아 있는 인간 경험으로 현실화시켰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151).

두 번에 걸쳐 자식을 빼앗기게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셀다는 자신과 월터와의 결혼 서약인 ‘순종’의 의미를 경험적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자신의 결혼관계가 철저한 주종관계라는 것을 처절하게 인식하게 된다. 또한 ‘당신의 명령’, ‘당신의 기쁨’, ‘당신의 욕구’의 표현을 통해 그녀가 월터의 부도덕성과 잔인함, 책임을 간접적으로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도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월터가 행하는 잔인한 시험을 ‘인내심’으로 순종하고 있는 그리셀다이지만, 그녀의 말을 통해 월터의 잔인함을 파악하고 그에 대해 간접적으로 비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결혼 서약에 간혀있는 그녀의 억압적 상황, 그로 인해 발생된 인간적인 고통, 그 고통을 극도의 ‘인내심’으로 이겨나가는 그녀의 강인함도 엿볼 수 있다. 그녀의 ‘인내심’은 얼핏 보기에는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지

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점점 가부장제에서 약자인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무기로 제시된다. 이러한 인내심이 가부장제 전통의 순응을 넘어서서 월터의 폭력에 대항하는 도구임을 월터의 시험에 대응하는 그녀의 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⁶⁾

Ⅲ. 그리셀다의 해석의 능력

그리셀다의 말에서 표출되는 인식의 능력은 그녀의 ‘의복의 비유’에 대한 정확한 해석으로 계속된다. 그리셀다는 자신이 ‘옷을 벗은 것’을 월터에 대한 자발적이고 열렬한 복종의 의미로 설명한다. 그녀는 자신이 ‘낡은 옷’을 벗고 월터가 준 ‘새 옷’을 입은 것을 자신의 ‘의지’와 ‘자유’를 집에 놓아두고 ‘새 옷’으로 상징된 그의 ‘의지’를 자신의 등에 걸친 것으로 해석한다. 의복의 메타포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그리셀다의 자기 인식의 표현으로 인식된다(Wallace 288). 이렇게 그리셀다가 자기 자신을 읽어내는 능력은 그녀가 중세 남성들이 여성을 배제시킨 ‘남성중심’의 해석방식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Dinshaw 141-8).⁷⁾

또한 이야기의 앞부분에서 ‘그녀의 말은 현명하고 적절했으며, 판단력은 예리하고 공평했다.’(CPT 438-9)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셀다는 덕과 함

6) 월리스(Wallace)는 월터의 폭력을 흑사병(Black Death)에 비유하며 그리셀다가 고양한 내적인 순수함이 그녀를 전염병처럼 괴롭힌 월터의 폭력보다 오래 지속된다고 언급한다(281).

7) 딘쇼(Dinshaw)는 중세 남성중심의 텍스트 해석 방식에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translator’와 ‘translatee’의 관계로 보고 이것을 이스라엘 가족제도에서 승리한 전사가 이방여인과 결혼할 때 ‘옛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그녀는 월터를 ‘translator’, 그리셀다를 ‘translatee’로 간주하여 그리셀다의 ‘옷’ 자체의 의미와 ‘옷’의 변화가 상징하는 특징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 ‘옷’을 의미하는 ‘array’와 ‘estatt’는 서로 맞바꾸어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월터는 그리셀다의 옷뿐만 아니라 그녀의 지위를 언급할 때도 ‘array’를 사용했다. 「총서시」(*General Prologue*, 이하 GP)에서도 *condicioun*, *degree*, *array*는 병치되어 사용된다(GP:37-41). 딘쇼는 CPT에서 자기 자신의 옷의 중요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셀다라고 규정하면서, 그녀는 옷이 벗겨지고 다시 입혀지는 알레고리적인 해석방식을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한다(141-8).

께 ‘언변’과 ‘판단력’을 지닌 인물로 그려진다. 이러한 능력을 지닌 그녀의 계속되는 언어는 그녀가 월터의 심중을 꿰뚫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이 점은 세 번째 시련에 대응하는 그녀의 대사를 살펴봄으로써 더 명확해질 수 있다.

특히 세 번째 시험은 월터가 그리셀다를 ‘백성이 보는 앞(790)’에 세우고 모욕을 주려고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셀다에 대한 시험은 개인적이고 은밀한 공간에서 대중이 보는 열린 공간으로 확장 된다. 그것은 앞선 두 번의 시험과는 달리 세 번째 시험에서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셀다를 세우고 그녀의 비천한 신분으로 야기된 문제점을 공개하여 그녀로 하여금 심한 굴욕감 내지는 반발심을 유발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월터가 이러한 공개된 상황에서 지참금을 언급한 것은 그리셀다의 가난하고 천한 신분을 더 노골적으로 환기하기 위해서였던 것이 분명하다.

그녀가 전과 다름 없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시험하고자
어느날 월터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거칠게 그리셀다에게 말을 했다.

If that she were as stidefast as bifoore,
He on a day in open audience
Ful boistously hath seyde hire this sentence: (789-791)

월터는 대중이 보는 앞에 그녀를 세우고 지참금을 언급하며 무자비하게 말한다. “그리셀다가 이동한다” (she translated, *CPT* 385)는 표현은 옷과 처소의 변화가 외부조건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그리셀다와 지배자와 수사학자로서의 월터의 권력을 재현하는 극명한 비유이다⁸⁾.

8) “translatio”는 남성 번역자와 여성 텍스트의 관계, 장소의 이동, 의복의 비유라는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 그리셀다가 남성들의 의지에 따라, 아버지에서 월터의 궁정으로, 다시 아버지 집으로, 월터의 궁정으로 잦은 장소 이동을 하는 것은 남성의 권위적 글쓰기에 종속되는 존재임을 상징한다(윤민우 117-118). 또한 월터는 사물을 통찰하는 페트라르카의 바라보는 능력이 월터가 그리셀다를 바라보는 능력에서 재현된다고 보았다. 즉 권력자인 월터는 그리셀다를 자신이 속한 삶의 경계를 넘어서

그리셀다가 움직이는 장소의 이동뿐만 아니라 그녀가 노출되는 공간의 확대를 통해서도 그리셀다의 종속적 존재의 비유는 심화된다. 월터는 세 번의 시험을 거치면서 그리셀다가 노출되는 공간을 점점 확대하고 그 근거를 자신과 신하, 자신과 백성들, 또한 교황과의 관계로 까지 확장시킴으로써 그리셀다를 더욱 압박한다. 또한 크레인(Crane)의 주장대로 월터가 그리셀다의 지참금을 언급한 것은 보다 물질적인 차원으로 규정할 수 있다(35). 또한 월터가 그리셀다를 대중 앞에 세우는 것은 그녀를 더욱 객체화, 대상화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초서는 그리셀다를 보다 물질적, 정치적 차원으로 구체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월터의 압박에 대한 그리셀다의 대항은 ‘변함없는 인내심’과 ‘언어적 대응’으로 축약된다. 그리셀다의 인내심은 이러한 공개된 굴욕적 상황에서 월터의 비인간적인 잔인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그녀의 인내심이 더 이상 수동적인 방어용이 아닌 적극적인 저항의 무기임을 증명하고 있다. 그녀는 다른 어떤 때 보다 더 당당하고 의연한 태도와 발언으로 월터의 시험에 대항하고 있다. 그리셀다의 말은 바쓰부인의 말처럼 떠들썩한 것은 아니지만, 더 신중하고 의미심장하다(Dinshaw 141). 그녀는 ‘알고 있었지요, 저는 언제나 알고 있었어요’(CPT: 814)라고 월터가 시험의 빌미로 제공한 자신의 비천한 신분을 평소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인다.⁹⁾ 월터가 그녀의 비천한 신분을 빌미로 하여 그들의 결혼의 존재기반을 공격할 때, 그녀는 자신의 신분에 대한 철저한 인정과 겸손함으로 답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위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자신이 월터의 진정한 아내라는 확고한 정체성의 인식의 발로이다. 그리셀다는 자기 자신이 월터의 진정한 아내이기에 자신이 다른 이의 아내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리라고 확인한다(CPT: 832-840). 그녀는 자신이 순결을 바쳤음을 상기시키면서 교묘히 그와 좌우의 청중들로 하여금 월터가 감당해야할 책임감을 느끼도록 유도한다. 그리셀다는 또한 결혼 당일 월터가 얼마나 친절하고 고귀해 보였던 가를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심

다른 영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다(Wallace 284-285).

9) "My lord," quod she, "I woot, and wiste alway, / How that bitwixen youre magnificence/ And my poverté no wight kan ne may/ Maken comparison."(CPT 814-17) 그리셀다는 평민인 자신과 그의 군주 월터의 위대함 사이의 엄청난 차이를 인식하고 있다(Wallace 279).

경을 토로한다.

“나의 주인님, 당신도 아시다시피 저의 아버지 집에서
당신은 저의 냥마 조각 같은 옷을 벗기시고
친절하게도 저를 화려하게 옷 입히셨죠.
제가 맹세코 당신에게 가져온 것은
믿음과 알몸과 순결말고는 없었어요.
여기에 당신이 주신 옷과 결혼 반지를
영원히 되돌려 드립니다” .

“My lord, ye woot that in my fadres place
Ye dide me streepe out of my povre weede,
And richely me cladden, of youre grace.
To yow brought I noght elles, out of drede,
But feith, and nakednesse, and maydenhede,
And heere agayn your clothyng I restooore,
And eek your weddyng ryng, for everemore
...” (CPT 855-868)

“그러니 제가 당신에게 가져오고
이제는 다시 가져갈 수 없는
순결에 대한 보상으로 제가 입던 겹옷 한 벌을 취해서
당신의 아내였던 배를 가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당신을 괴롭혀 드리지 않도록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Wherfore, in gerdon of my maydenhede,
Which that I broghte, and noght agayn I bere,
As boucheth sauf to yeve me, to me meede,
But swich a smok as I was wont to were,
That I therwith may wrye the wombe of here

That was youre wyf And heer take I my leeve
Of yow, myn owene lord, lest I yow greve” (875-889)

‘사람들이 말하던 “오래된 사랑이 처음 일 때의 사랑과 같지 않다”던 말이 자신에게 적용되니 이제야 사실인 것을 알았다’에서 그녀가 월터의 심증을 꿰뚫고 있으며 동시에 그에 대한 원망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셀다는 월터의 사랑이 처음과 같지 않음에 대한 서운함을 말하면서 오히려 결혼 당일의 서약을 지키기를 ‘변함없이’ 강요하는 월터가 변했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자신이 결혼할 당시 온 마음을 그에게 다 주었던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나 결코 후회하지 않으리라고 말함으로써 월터는 변했을지라도 그리셀다 자신의 결혼 서약과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리라고 그와 대중들 앞에서 선언한다. 이로써 그리셀다는 자신의 사랑이 월터의 사랑보다 더 고귀함을 드러내며 월터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한다. 이 대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을 그리셀다의 결의와 사랑에 감탄하도록 독자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그녀의 언어는 전략적이다.

그리셀다의 어조 또한 이전보다 훨씬 적극적이며 당당하고 명령적이다. 지참금을 언급하는 월터에게 자신이 지참금으로 가져온 것은 ‘민음’과 ‘벗은 몸’과 ‘순결’뿐임을 밝히며 그가 준 옷과 결혼반지 모두를 되돌려준다. 자신의 지참금에 대한 그리셀다의 이러한 해석은 그녀를 수치스럽게 하려는 월터를 향한 보다 지략적인 저항이다. 크레인(Crane)은 이 장면에서 페트라르카 본과 초서 본의 차이에 주목하는데 페트라르카가 그리셀다의 내면과 외면의 차이를 그려냈다면 초서의 그리셀다는 외면과 내면이 일치하는 여성, 즉 자아(self)와 수행(performance)이 일치하는, 즉 전적으로 수행된 자아인 그리셀다를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처녀막”(maydenhede)이 지참금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그리셀다는 옷을 교환하고자 협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환의 논리는 그리셀다가 자신의 결혼을 상실과 가변성의 역사로 이해한 것이며 그녀가 협상한 겉옷은 회복할 수 없는 처녀성과 세월의 손실을 환기시킨다(34-35).

초서가 페트라르카의 “처녀성”(virginitas)를 “처녀막”으로 대치한 것이 페트라르카의 ‘영적’인 관심을 전적으로 ‘육체적인 것’으로 전환했다고 단정지를

수는 없다. 하지만 초서는 “처녀막”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처녀성”이라는 영적인 가치 뿐 만 아니라 “처녀막”이라는 구체적이고 육화된 가치를 포함시키며 이는 그리셀다의 상황에 더 적절하다.¹⁰⁾ “처녀막”은 보다 ‘육화’된 강렬한 이미지로 그리셀다의 상실감과 고통을 더욱 구체화시킨다.

그리셀다가 아버지 집에서 입었던 옷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자유, 의지를 내려놓고 월터에게 철저히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녀는 왔던 그대로 벗은 몸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한다. 그녀의 이 발언은 겸손과 복종의 전형이지만 그녀의 처우에 대한 어떤 불평보다도 더 인상적인 강인한 독립정신을 내포하고 있다. 비숍(Bishop)은 이 순간에 진정한 농노의 딸이 자신의 딸로써 그녀가 진정한 귀족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한다(132). 그리셀다의 끈질긴 인내와 헌신은 결국 월터의 의심을 신뢰로 변화시키며 굴복시킨다. 그녀의 가치와 중요성은 월터가 입혀준 옷과는 상관없이 그녀는 변함없이 ‘덕행이 높은’ 상태로 남아있다(CPT 407). 옷을 입든, 옷을 벗든 그녀는 ‘충실’하다. 월터의 명령으로 옷을 벗고 ‘벌거벗은’ 상태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그녀의 ‘정절’과 ‘변함없음’과 ‘충실함’은 드러난 그대로이다(Dinshaw 141-148). 겉옷 하나만을 자신의 순결의 대가로 얻어서 벗은 몸을 가린 채 곧바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그리셀다의 모습에서 그녀의 인내심이야말로 월터의 폭력에 저항하는 적극적인 대항 방식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깊은 수치감이나 굴욕감을 주어 그리셀다의 인내심을 시험하려고 했던 월터에 대항해서 그녀는 자신이 진정한 월터의 아내이며 결혼 서약을 끝까지 지켜내고 있음을 뛰어난 언변을 통해 증언한다. 정확한 인식과 뛰어난 언변으로 그녀는 자신의 변하지 않는 ‘절개’를 주장하며 약속을 깨뜨린 사람은 오히려 월터임을 증명한다.

그리셀다의 인내심은 어떠한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벽”(CPT 1047)의 이미지로 제시된다. 세 번의 시험을 거치면서 그리셀다의 변함없음을 확인한 월터는 그리셀다에게 굴복하고 결국 그녀를 인정하게 된다. 바스부인의 남편들처럼 월터도 아내에게 굴복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녀의 헌신으

10) 페트라르카는 ‘maidenhead’를 지참금의 일부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페트라르카의 그리셀다는 ‘fides et nuditas’(nakedness and devotion)만을 지참금으로 주장한다(Severs 280; Crane 36)

로 육화된 언어는 월터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설득시킨다(*CPT* 1117, 1125-7). 자기 자신과 의복의 비유에 대한 해석의 능력은 곧 그리셀다의 ‘힘’이 된다.

IV. 결론

이와 같이 초서는 월터의 이미지를 더욱 잔인하고 치밀한 ‘폭군’의 이미지로 제시하고 그의 억압성을 더욱 구체적이고 강도 높게 설정함으로써 그리셀다가 처한 상황을 더욱 현실적인 경험세계로 구체화한다. 페트라르카의 그리셀다가 시대를 초월한 신에 대한 순종의 대명사로 ‘고전화’되고 ‘신화화’되고 ‘도덕화’됐다면 초서는 페트라르카의 그리셀다를 특정한 시기의 역사적, 정치적 순간에 존재하는 한 여성으로 그리고 있다(Wallace 282). 초서는 월터의 시험에 끊임없이 회의를 하는 화자를 통해 여성의 입장에서 그리셀다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고, 그리셀다에게 보다 구체화된 인간적인 목소리를 부여하여 실제적인 여성인물의 경험을 복원하며 페트라르카의 종교적 해석으로부터 탈피하려고 시도한다.

세 번의 시험을 거치면서 정도와 공간적인 면에서 더욱 심화되는 월터의 공격에 대응하여 더욱 지략적으로 변모하는 그리셀다의 언어적 대응방식과 그 안에서 표출되는 비유의 해석은 그녀가 순종적 여성의 대명사이기에 더욱 충격적이다. 초서의 월터가 그리셀다에게 가한 절대적 권력은 보다 물질적이고 육화된 상태로 가부장제 하에서의 여성의 고통과 억압을 구체화시킨다면 초서의 그리셀다는 더욱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언어적 대응을 통해서 월터와 백성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정확한 자기정체성 인식과 능력을 갖춘 여성임을 설득하고 있다.

초서가 페트라르카의 종교적 알레고리에 갇혀 있는 그리셀다에게 현실적인 경험을 부여하고 그녀의 말과 생각, 그녀가 겪는 고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그리셀다는 가부장제하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살아있는 여성으로 육화된다. 순종적인 여인의 대표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셀다가 변함없이 인

내심을 발휘하고 고통을 통해 얻은 자신의 지략적인 언어로 남편을 굴복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초서는 여성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실제 삶에서 남성들이 기대하는 그리셀다는 없다고 말한다.

WORKS CITED

- 윤민우. “그리셀다의 몸과 노동: 초서의 「학자의 이야기」,” 『중세르네상스영문학』, 제 16권 1호, 2008.
- Aers, David. *Faith, Ethics and Church: Writing in England, 1360-1409*. Woodbridge, Suffolk: Brewer, 2000.
- Benson, Larry D., ed. *The Riverside Chaucer*.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1987.
- Bishop, Ian. *The Narrative Art of the Canterbury Tales*. London and Melbourne: Everyman, 1987.
- Boccaccio, Giovanni. *The Decameron*. Trans. G. H. McWilliam. Harmondsworth: Penguin, 1972.
- Cox, Catherine S. *Gender and Language in Chaucer*. Gainesville: UP of Florida, 1997.
- Crane, Susan. *The Performance of Self*. Philadelphia: U of Pennsylvania P, 2002.
- Dinshaw, Carolyn. *Chaucer's Sexual Poetics*. Wisconsin: Wisconsin UP, 1989.
- Hansen, Elaine Tuttle. *Chaucer and the Fictions of Gender*.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92.
- Kittredge, G. L. *Chaucer and His Poetry*. Cambridge: Harvard UP, 1915.
- Mann, Jill. *Geoffrey Chaucer*. London: Harvester, 1991.
- Petrarch, Francesco. *Letters of Old Age: Rerum senilium libri I-XVIII*. Trans. Aldo S. Bernardo, Saul Levin, and Rita Bernardo. 2 vols.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92.
- Severs, J. Burke. *The Literary Relationships of Chaucer's Clerks Tale*. Connecticut: Archon, 1972.
- Wallace, David. *Chaucerian Polity*. Stanford, Calif: Stanford UP, 1997.

Abstract

Griselda's power: language and translation

Ji-Yeon Choi

This study focuses on how Chaucer's Griselda reacts to and resists her husband, Walter's oppression and verifies her pure identity and power, especially using the metaphor of clothing. Chaucer translates Petrarch's spiritual and unworldly Griselda into particular and real Griselda. Chaucer tries to differentiate his text from Petrarchan allegorical one in some aspects. He tells his tale through 'Clerk,' the narrator, who constantly questions Walter's attitude toward Griselda and shows a pity on Griselda.

And Chaucer's Walter is presented as more violent and oppressive than Petrarchan Walter. Griselda's language in Chaucer is longer, more strategic and more specific than other writers.' Her interpretation of her selfhood and clothing metaphor accentuates female power and resistance paradoxically, for she is recognized as the archetype of submissive and silent women. Especially, Griselda's interpretation of her dowry seems a resourceful resistance to Walter's attempt to shame her in public. By asserting that her maidenhead was part of her dowry, she demands a smock in return for her virginity and causes Walter's shame in public.

While adapting Petrarch's Griselda story, Chaucer makes her a more real and powerful woman living on the earth. She performs domestic, wifely, and public works anywhere she belongs to, which makes readers feel pity for her and angry to her husband and recognize her power. Walter's violence and her suffering through it are specified and materialized well in *Clerk's Tale*. Griselda's constant patience is supposed to be another

powerful weapon against Walter's violence, which makes him surrender to her silent power. Chaucer's Griselda becomes the woman of power and ability.

Key Words: translation, clothes, language, reality, power, materialization

번역, 옷, 언어, 현실, 힘, 물질화

논문접수일: 2010. 11. 8

심사완료일: 2010. 12. 7

게재확정일: 2010. 12. 14

이름: 최지연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

주소: (139-899) 서울시 노원구 상계 3동 청암 아파트 203동 601호

이메일: choijya1@hanmail.net

